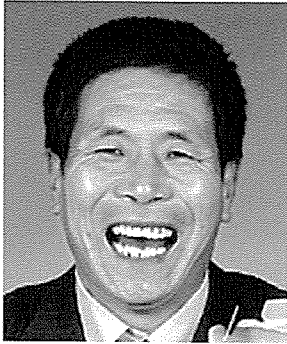


기능성 상품으로 새 돌파구 찾는 농가들



본협 이기준 감사

꿀을 채취하고 남은 부산물에서 추출한 ‘프로폴리스(Propolis)’ 성분을 이용해 새로운 가공식품 시장을 개척하는 양봉 농가가 있다.

30여년 동안 제주도에서 강원도 철원을 오르내리며 벌을 치고 있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의 이기준(51·사진)씨.

이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과수와 채소 재배에 나섰으나 실패를 거듭했다. 이어 한우와 양돈 등 축산업도 손을 댔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이후 이씨는 양봉에 뛰어들어 매년 500여통의 벌들과 함께 전국 산하를 누비며 2.5t의 꿀을 생산해왔다. 하지만 밀려드는 저가 수입 꿀의 공세로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나섰다.

그가 찾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은 다름아닌 프로폴리스. 그는 경상대 식품영양학과와 도움을 받아 7년여 연구 끝에 벌집의 밀랍에서 천연 페니실린으로 불리는 프로폴리스 성분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고, 올해 농업기술진흥청으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2006 벤처농업 시범농가’로 선정되는 열매를 맺었다. 현재 이씨는 ‘위텔스 프로폴리스’라는 이름으로 기능성 밀랍 치약과 화장품, 껌, 사탕 등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씨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뒤 농협과 연계해 판로 개척과 전국 양봉 농가의 질 좋은 밀랍 수집에 나서 양봉 농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로폴리스 성분은 각종 항균, 항암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일본에서 수입된 원액 30cc 가격이 40만~5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이씨 제품이 본격 출시되면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씨

는 “과거에는 뉴질랜드나 호주 여행객들이 프로폴리스 제품을 사 가지고 들어왔지만 지금은 브라질 등지에서 값싼 제품들이 수입돼 판로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현재와 같은 꿀 생산으로는 농가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어 가공과 판매가 결합된 새로운 2차, 3차산업만이 농촌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